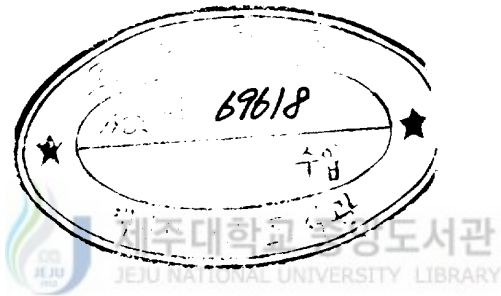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Dubliners*에 나타난 葛藤의 類型과 그 解消

指導教授 卞 鍾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柳 昌 錫

1992年 8月

Dubliners 에 나타난 葛藤의 類型과 그 解消

指導教授 卞 鍾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柳 昌 錫



柳昌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梁 永 洙  
진 允 민  
卞 鍾 民

〈抄 錄〉

## *Dubliners*에 나타난 葛藤의 類型과 그 解消

柳 昌 錫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卞 鍾 民

본 論文은 James Joyce의 단편소설인 *Dubliners*에 나타난 여러가지 갈등의 유형과 그 해소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Joyce는 이 작품에서 그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인 Dublin시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Dublin 사람들의 정신적 마비와 억압된 정서, 그리고 그것들의 갈등양상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양상과 Dublin의 지정학적, 문화적 배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본 논문은 *Dubliners*가 씌어질 당시, 또는 가까운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또 다양한 갈등들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몇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과 그 결과적 양상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논문은 *Dubliners*에 나타나는 주된 갈등의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自我 對 他我, 本能 對 道德律, 物質 對 精神, 그리고 監禁 對 脫出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 IV장에서는 Dublin 사람들의 정서적 억압상태와 갈등양상을 단순히 해부하고 노출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갈등들의 의미와 그 해소과정을 정리했다.

# 目 次

초 록	
I. 서 론	1
II. 갈등의 배경	3
1. 시대적 상황과 갈등구조	3
2. 갈등의 이론적 배경	5
III. <i>Dubliners</i> 에 나타난 葛藤類型	12
1. 自我 對 他我	12
2. 本能 對 道德律	17
3. 物質 對 精神	23
4. 監禁 對 脫出	28
IV. 葛藤의 解消	35
V. 결 론	42
參考文獻	45
Abstract	47

## I. 서 론

소설이란 葛藤關係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 된 소설이란 葛藤關係에 무리함이나 어색함이 없이 잘 짜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훌륭한 소설가란 이야기의 葛藤關係를 적절하게 設定하고 그 關係를 매끄럽게 進行시키고 解消하는 방법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James Joyce의 *Dubliners*는 매우 적절한 例證的 소설이 될 만하다.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씌여졌던 그의 최초의 단편 소설집 *Dubliners*에서 작가 Joyce는, 그의 출생지이며 성장지인 Dublin시를 背景으로 하여, 당시 Dublin사람들의 억압된 감정과 그것들의 葛藤樣相, 그리고 전개 과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시대와 공간에서의 특수한 이야기는 그곳의 現象과 問題로서 끝나지 않는다. Dublin사람들의 價値不在, 價値混亂, 精神的 麻痺, 道德的 不感症 현상, 墮落的 物慾主義 등은 심지어 오늘날 사는 현대인의 보편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 오는 것이다.

문학이란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아무런 因果關係없이 자생적으로 발생,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학의 가치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存在意義 또한 그곳에서 비롯되며 결과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Dubliners*가 씌어질 당시 또는 가까운 그 이전의 Ireland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은 *Dubliners*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그 시기의 작가의 개인적 체험 또한 작품 속의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리라 여겨져 몇 가지를 살펴 보겠다.

*Dubliners*에는 모두 15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 Joyce는 이러한 작품들을 그 내용의 성격상 크게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령과 그 연령기에서의 의식적 체험, 그리고 심리적 갈등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의 양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유년기, 사춘기, 성숙기, 그리고 사회 생활기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네가지의 국면 설정을 통해서 마비의 중심지로서의 Dublin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치리만치 꼼꼼한(*scrupulous meanness*)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인들의 전형적 상황으로 제시된 마비의 양상에 대한 주제적 테마와, 그의 소설 속에 엄존하고 있는 갈등 구조는 서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인상을 준다.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Dubliners*에 관한 논문들의 대부분이 등장 인물들의 마비양상이나 生中死(*death in life*) 상황에 논지의 초점을 맞추고 쫓아진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인의 정신적 마비 양상을 다루고 있는 그의 단편들이 기법이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신적, 윤리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인간들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Joyce는 그의 독특한 작가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담담하고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로 *Dubliners*에 나타난 다양한 갈등의 양상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갈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의 틀을 통해서 *Dubliners*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과 그 결과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本論이라고 할 수 있는 제Ⅲ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의 유형들이 크게 네가지 형태, 즉 自我對他我, 本能對道德律, 物質對精神, 그리고 監禁對脫出 등으로 분류되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Dubliners*의 총화격이요, climax story라고 할 수 있는 “The Dead”를 중심으로 모든 갈등들을 재조명하고 그것들의 해소 과정, 그리고 그 결과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 II. 갈등의 배경

### 1. 시대적 상황과 갈등구조

*Dubliners*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Ireland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수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eland는 Britain 섬 서쪽, 북위 51°에서 55°에 걸쳐 있는 섬으로 면적이 8만여 평방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섬 가운데는 低地帶로, 이 저지대를 주변의 山地가 둘러싸고 있는데, 洪積世 때 빙하의 침식을 받아 높은 산이 없이 구릉지로 연속되어 있다. 편서풍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은 해양성 기후에다가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위도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酸性 토양이라 농작물 수확은 보잘 것 없다.

이러한 기후와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Ireland 민족은 매우 정감있고 우수어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으며 그들의 많은 민요나 문학은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중 대부분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유럽대륙에서 이주해 온 Celt족의 후손으로 그 뒤에 침입해온 Dane족, Norman족과 혼혈이 되어 오늘날의 Ireland인을 이루고 있다. 유럽의 서쪽에 멀리 떨어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옛 모습이나 생활 관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폐쇄적인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血族意識이나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로마카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이와같은 인종학적 구성 배경은 Joyce문학의 곳곳에 반영되고 있으며 葛藤이나 紐帶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e Dead”에서 Ivors양과 Gabriel의

1) 池田文雄(1979), 「北아일랜드 그 원한의 역사」, 이길진 譯(1981), 青年社, pp.5~6.

갈등 유형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다. Ireland의 고유어인 Gael어가 아직도 사용되는 Aran섬에 유람 여행을 가자고 Ivors양이 말했을 때 Gabriel은 사전에 계획된 유럽 여행 때문에 이를 거절한다. 이 때 그녀는 자기나라도 다 못 보았으면서 무슨 유럽 여행이냐고 공박하는데 Gabriel은 그 곳 나라들의 언어를 익혀보고 싶다고 대답한다. 자기나라 말을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또 옹수하면서 Gabriel이 자기 민족이나 조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Ivors양의 모습은 폐쇄적이고 정체적인 Ireland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암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배경은 Ireland민족의 기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Joyce문학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서 노출되고 있다.

North Ireland를 제외한 서부와 남부의 Ireland 대부분은 영세한 가족 경영의 농업 사회였는데 1739년의 대흉년에는 인구의 1/5이 굶어 죽었다. 18세기 전 기간을 통해서 빈곤은 더 심화되었으며 1830년경 부터는 잇따라 토지를 빼앗김으로써 토지 문제가 절박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845년부터 3년간에 걸친 감자 흉작으로 인해 인구 120만 여명이 기아로 죽어갔다. 이 때도 곡물은 풍작이었으나 영국으로 모조리 수출되어버렸기 때문에 수백만의 Ireland인은 영국을 저주하고 영국인 지주에게 처절한 원한을 품은 채 죽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환경은 결국 농민들의 폭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아일랜드 소작권 동맹'이 창설되었다. 또 1859년 미국으로 'Fenians'라는 反英 비밀결사가 결성되고 1897년에 이르러 '아일랜드 국민당 좌파'와 'Fenians' 우파가 연합하여 '아일랜드 국민 토지 동맹'이 탄생, 지도자 Pannel을 중심으로 치열한 反英 투쟁이 시작되었다.<sup>2)</sup>

토지 문제와 민족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첨예하게 대립되던 이 시기에 Joyce의 *Dubliners*는 탄생하게 된다. Joyce문학의 도처에서 민족주의 문제가 거론되고 영국과의 갈등 양상이 묘사된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한 문학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

---

2) 上掲書, pp.11~15.



러운 의식의 표현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의 갈등은 그 나라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Tierney와 Colgan의 출신 배경을 둘러싼 논쟁은 Ireland의 19세기 말의 정치 상황을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영국왕 Edward 7세의 Ireland 방문을 앞두고 Henchy와 O’Conner씨와의 대화 역시 당시 Ireland 사람들의 영국에 대한 감정을 말해주고 있으며, “Anyway, I wish he’d turn up with spondulics”라는 O’Conner씨의 말은 당시 Ireland사람들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의식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Ireland는 여러가지 복잡한 구성 요인으로 인해 상호갈등의 씨앗을 지니고 있었다. Joyce가 살고 있던 당시에 Ireland에는 카톨릭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동부 지역에는 개신의 장로교파, 감리교파와 영국 국교회파 등이 있어서 구교도와 신교도와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는데,<sup>3)</sup> 기존 카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저급화와 더불어 신·구교도 간의 갈등이 Joyce의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거의 모든 문학작품에서처럼 문학과 그 작가의 시대적 환경과의 유기적 관련성은 *Dubliners*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Joyce가 처하고 있었던 시대적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그의 문학을 접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는지도 모른다.

## 2. 갈등의 이론적 배경

사회 형태나 구조, 또 그 역사적 형성 배경과 그 사회 구성원의 핵심적 킴플렉스(nuclear complex) 사이에는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Joyce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의식의 흐름’(the stream of consciousness)’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

3) 上掲書, pp.6~7.

인간의 억압된 정서적 태도를 분석, 묘사 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Dublin에 기존해 있는 여러 관습이나 문화적 양상, 사건, 행사 등을 작품 속에 도입,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콤플렉스와 그것들의 갈등 상태를 날카롭게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Dubliners*에 나타난 다양한 억압된 정서와 갈등 양상을 분석,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갈등의 개념과 또 그 발생 원인을 보는 입장, 그리고 그 양상 및 발달, 전개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Edward J. Murray는 갈등이란 한 개인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화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sup>4)</sup>

또 Sigmund Freud는 그의 「文化論」에서 문화란 생물적 충동과 사회에서의 적응 욕구가 충돌해서 생긴 산물이라고 했는데 이 때의 두 가지 욕구는 兩立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갈등의 바탕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 발생의 배경에 대해서 Kurt Lewin은 세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sup>5)</sup>

첫째는 한 개인이 다 취하고 싶은 두가지 목표들 앞에서 방황하는 경우 (The approach-approach type)이며, 둘째는 접근하고 싶은 대상과 회피하고 싶은 대상을 동시에 다 지닌 경우 (The approach-avoidance type), 그리고 셋째는 한 개인이 두가지 다 회피하고 싶은 대상을 두고 갈등하는 경우 (The avoidance-avoidance type) 등이 그것이다.

“Eveline”에서 Eveline이 느끼는 갈등의 유형이 첫번째 경우이다. 그녀는 폭악한 아버지를 버리고 그녀의 친구 Fank와 함께 Buenos Ayres로 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자유와 사랑에의 욕구는 마지막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경우의 예로서는 “The Boarding House”의 주인공 Doran의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性的 충동에 의해서 Polly Mooney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결혼의

4) David Silis (196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p.226.

5) *Ibid.*, p.220.

속박을 거부하는 Doran의 행위와 그런 상황에서의 갈등이 그것이다.

비슷한 예로서 "A Painful Case"에서의 주인공 James Duffy는 Emily Sinico 부인과 만나 교제하면서도 깊어져가는 사랑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회피하는 소심한 독신 남자의 모습 역시 이런 유형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의 갈등은 "Counterpart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직장에서의 절망감이나 상사로부터의 모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Farrington의 모습이 그것이다.

Anatol Rapoport는 갈등의 유형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 갈등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갈등 세력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취했다. 갈등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상위 메카니즘(mechanism)의 유무에 따라서, 있는 경우는 내인성 갈등(endogenous conflict), 없는 경우는 외인성 갈등(exogenous conflict)이라고 분류했다.<sup>6)</sup> 또 갈등하는 대상들의 세력이나 입장, 수준 등이 비슷한 경우에서의 갈등인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의 갈등인가에 따라서 각각 균형적 갈등(symmetric conflict)과 균형 파괴적 갈등(asymmetric conflict)으로 나누었다. 또 이기고 지는 것이 뚜렷하지 않고 체제나 균형을 유지하는 성격이 짙은 것인가 아니면 체제 변혁이나 혁명 지향적 갈등이어서 체제가 변화하지 않은 한 근본적인 해소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따라 각각 논쟁 지향적 갈등(issue-oriented conflict)과 구조 지향적 갈등(structure-oriented conflict)으로 이분했다.

이러한 분류의 방법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집단간의 갈등을 분류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 개인의 심층에 잠재하는 갈등이나,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소집단, 소집단 대 소집단의 갈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서의 인간 심리의 모습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

6) Anatol Rapoport(1974),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 Penguin books, p.126.

“The Sisters”나, 가정의 골레 속에서 자유와 출세를 갈망하며 갈등을 겪는 내용의 “Counterparts”가 内因性 葛藤의 모습이라면, 아저씨(기성세대)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소년의 애뜻한 사랑의 감정이 파괴되는 “Araby”나, 현실의 무료함에 대한 반항 심리로 자유로운 도피를 감행하는 내용의 “An Encounter” 등은 外因性 葛藤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또 물욕주의에 젖어 있는 어머니와, 계약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음악회 주최측과의 갈등을 다룬 “A Mother”의 내용을 均衡的 葛藤의 유형으로 본다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무시, 모멸 당하는 내용의 “Counterparts”에서의 갈등은 均衡破壞的 葛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he Dead”에서 Gabriel과 Ivors양과의 논쟁과 입장의 차이를 論爭指向的 갈등이라면,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선거운동 참모들간의 모습은 構造指向的 葛藤이라고 여길 만하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넓게 본다면 내인성 갈등, 균형적 갈등, 그리고 논쟁 지향적 갈등을 유사한 성격으로 묶을 수 있으며 외인성 갈등, 균형 파괴적 갈등, 그리고 구조 지향적 갈등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심리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객관적이며 가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사회학자인 Lewis Coser는 한 개인에게 좌절감을 안겨 준 존재에 대한 공격 욕구나 갈등은 現實的 葛藤이라 할 수 있지만, 오로지 한 개인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 심리를 갖는 것은 非現實的 葛藤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sup>7)</sup>. 갈등을 위한 갈등, 뚜렷한 대상이나 원인이 없는 갈등 등이 그것인데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성격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Joyce문학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갈등의 양상은 중요한 문학적 제재가 되고 있으며, 작가의 깊은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억압된 정서나 갈등, 그리고 좌절감 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단계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원인에 대한 결과적

7) Lewis Coser(1969),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A Free Press, p.153.

유형으로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sup>8)</sup> *Dubliners* 에 나타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抑壓(repression)의 형태이다. 내부의 위협적 감정이나 충동등을 억제하는 경우인데, “Counterparts”에서 직장 상사 Alleyne의 일방적인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당하면서 Farrington이 내부에 간직하는 심리적 상태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Araby”에서 아저씨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랑하는 Mangan’s sister에게 줄 선물을 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내”가 느끼는 번민과 분노의 감정도 자기 갈등의 억압 형태임은 물론이다.

둘째로, 攻撃性(aggression)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감정, 정서가 더 이상 억눌려 있지 못하고 외부의 대상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띠고 폭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 Mother”에서 무책임한 Holohan씨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돌부처처럼 분노하는 Kearney부인의 행위라든지, “Counterparts”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지시하는 Alleyne에게 머리통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리는 Farrington의 행동 성향을 꼽을 수 있다.

셋째로, 갈등의 원인을 방치하거나 무시, 연기하는 경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철회(withdrawal)의 형태를 들 수 있는데 “After the Race”에서 무기력한 삶으로 일관하는 Jimmy Doyle의 모습을 그 예로 들만하다. 카드놀이에서 많은 돈을 잃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愚行을 덮어줄 무감각한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Dubliners*의 곳곳에 무감각한 철회(withdrawal)의 행동 성향은 거의 마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넷째로는 反動形成(reaction formation)이다. 내재하고 있는 정서나 충동을 정반대의 형태로 代替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A Mother”에서 Kearney부인의 행동유형을 그 예로 들만하다. 상류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은 그녀가 구두장이 Kearney와 電

8) 李定均(1990), 「改訂版 精神醫學」, 一潮閣, pp.70~73.

결혼하는 모습이라든지, 물욕주의에 가득 차 있던 그녀가 딸의 연주회 출연 계약 관계에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개입하여 모성애를 발휘하는 행동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로 昇華(sublimation)의 형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억압된 정서나 열악한 상황을 창조적인 과정으로 고양시키거나,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 적극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경우인데 “The Dead”에서 Gabriel의 행위를 그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죽은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 소외감 속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의 타락한 현실을 발견하고 관용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의 모습은 승화의 화신이기도 하다.

여섯째는, 비합리적 정서나 행위에 합리적, 논리적 취지를 부여하거나 정당화하는 심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合理化(rationalization)의 태도이다. “A Painful Case”에서, Sinico 부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Duffy가,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위선적 도덕 의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일곱째는, 치환(displacement)을 들 수 있는데, 보통 원치않은 어떤 감정을 실제 그 감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경험하려는 태도나 행위 등을 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Counterparts”에서 집에 돌아온 Farrington이, 직장과 술 좌석에서의 모멸감, 패배 의식 등을 그의 아들 Tom을 매질함으로써 푸는 경우나, “A Little Cloud”에서, 출세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꼬마 Chandler가 칭얼대는 그의 아기에게 고향을 질러대는 행위 등은 치환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존하는 고통스런 감정, 생각 등을 否定함으로써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는 행동 유형인 否認(denial)을 들 수 있다. 소심하면서 화통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의 일반적 성향으로 “Clay”에 등장하는 Maria의 모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노처녀로 있으면서 결혼에 대한 욕구를 감추기 위해 “I Dreamt that I Dwelt”의 노래 2절을 빠뜨리고 1절을 반복하는 행위라든지, 버스안에서 만난 영국 신사에 대한 감정 때문에 cake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행위 등은 Maria의 否認(denial) 성향의 행위를 말해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Joyce의 *Dubliners*에는 다양한 갈등의 동기가 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행동 성향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을, 주변 학문의 지식과 범주를 통해서 몇가지의 적절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Dubliners*의 새로운 해석과 연구를 위한 또다른 방향과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있는 비평적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 Ⅲ. *Dubliners*에 나타난 葛藤類型

#### 1. 自我 對 他我

自我란 對象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과 행위의 주체이며 또한 체험의 내용이 변화하여도 同一性을 유지하는 의식의 통일체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他我란 自我에 대립하는 자기 아닌 '다른 나', 즉 他人의 我로 정의된다.<sup>9)</sup>

앞서 언급한 Lewin의 갈등 원인에 대한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自我란 접근하여 유지하고 싶은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他我란 회피하고 싶은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Joyce의 문학 세계에서 본다면 自我 역시 접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회피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An Encounter"에서 주인공 '나'는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따분한 학교 생활을 거부하고 해방과 자유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러한 自我는 결국 자신의 또다른 自我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즉 '나'는 모험의 현장에서 느끼는 공허와 불안 때문에 기존의 틀 속에 안주하는 원래의 自我에로의 복귀를 희망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성향이 존재한다. 즉 회피의 대상으로서의 他我是 미숙한 自我에 의해서 은근히 접근하고 싶은 대상으로 자리하기도 한다. "A Little Cloud"에서, 출세한 친구 Gallaher를 부러워하는 Chandler의 심리 상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두가지의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한 개인의 내면의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두가지의 상반된 심리적 갈등 또한 自我 對 他我的 대립 상황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Joyce는 그 스스로 *Dubliners*를 네가지 단계로 나눠 마비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 양상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그 중 유년기와 장년기에 해당되는

9) 도서출판 이삭, 林錫珍編(1983), 「哲學事典」, p.315.



작품에서는 自我對 他我的 대립 양상이 두드러진다. 아직 세상의 기존 타락 상태에 물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시야에 비친 어른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유년기의 작품에는 정이 메마르고, 자기 중심적이며, 무관심에 젖은 어른들과 '나'와의 갈등, 대립 양상이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묘사된다. 다른 세 개의 부류와는 달리, 유독 유년기의 작품만을 1인칭 시점으로 한 것은, 개인적이면서 극히 제한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을 강한 투시력으로 조명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또 이 시기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갈등하는 대상으로서의 '나'만이, 마비의 도시 더블린에서 마비되지 않은 존재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물욕주의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자에 의해서 더블린 사람들의 정신적, 도덕적 피폐와 마비는 더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Joyce가 어린 시절의 '나'라는 인물을 통하여 1인칭 소설로 *Dubliners*를 시작한 의도는 이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The Sisters"에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은 '나'와 Old Cotter이다.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 추호의 애도의 정도 없이 그를 비난해대는 Cotter영감과, 그러한 노인의 행동에 대해 '넌더리 나는 바보 영감 같으니라고 (Tiresome old fool!),' '넌더리 나는 코빨갱이 천치 영감 같으니라고 (Tiresome old red-nosed imbecile)'하면서 속으로 분노와 비난을 퍼붓는 '나', 이 두 갈등 대상을 통해서 Dubloin의 기성세대가 인간의 도덕적 정서에 메말라 있음이 대비적으로 노출된다. 또 은근히 신교를 찬양하고 구교를 비난하는 Cotter영감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분열된 더블린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벽난로 속에 아무렇게나 침을 뱉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타락한 어른들의 세계가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와 Cotter영감과 의 갈등 양상은, 이제 '나'와 '나'의 갈등으로 옮겨간다.

어린 시절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더 슬퍼하고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나'라는 존재는, 신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듯 자신 속에서 일종의 해방된 듯한 느낌을 체험한다. 뿐만 아니라 신부가 입관되어 있는 방에서도 기도를 드릴 때 역시, 신부에 대한 애도의 마음에 정신을 모으지 못한

다. 오히려 Nannie노파가 先導할 때, 노파의 치마 뒷쪽이 서투르게 여머진 모습이  
라든지, 운동화 축이 한쪽으로 뭉뚱 닳아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신부의 죽음으로부  
터 냉정한 이성을 지켜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종교적 속박에 움아매져 있는  
신부가 그 중압감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상황이나, 고해소에서 눈을 동그랗  
게 뜨고 웃고 있는 듯한 모습 등도 '나'라는 自我와 현격하게 대비되는 他我의 마비  
상태이다.

"An Encounter"에서는 현실에의 순용과 정규화 된 삶을 강요하는 기존의 세계와  
이를 거부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나'와의 대립 관계가 제시된다. 황량한 서부지방에  
대한 매력에 젖어 있던 Leo Dillon은 로마 역사 시간에 "하찮은 경탄(The  
Halfpenny Marvel)"을 읽다가 Butter신부에게 발각되어 꾸지람을 듣는다. Joyce는  
여기서 미래 지향적이고 모험주의적인 自我와 과거 지향적인 他我 사이에 선명한 대  
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진짜 모험이란 밖에서 찾아야 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Dillon과 Mahony와 '나'는 하루 수업을 빼먹을  
것을 결의한다. Liffey강을 건너서 Pigeon House로 갈 것을 모의하지만 용기 없는  
뚱뚱보 Dillon은 다음날 이러한 모험적 도피에 가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自我와 정규적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他我 사이의 대비를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나'와 Mahony는 마침내 Liffey강을 건너서 Ringsend등대를 지나 넓은 들판에  
도달하게 되는데, Liffey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은 여러가지 면에서 대조적 양상을  
띈다. 크레인과 엔진 소리, 삐걱거리는 마차와 마부의 외치는 소리, 떠들석한 거리  
풍경등이 강북쪽의 상황이라면 푸르고 넓은 들판과 산등성 너머의 Dodder강 풍경이  
강남쪽의 모습이다. 이러한 미묘한 대립 관계 역시 우연에서라기 보다는 작가  
Joyce의 면밀한 의도로 짐작된다.

Mahony와 '나'는 그 곳 들판에서, 일방적 자기 독백만을 해대는 속물 근성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험 정신과 동경심은 그 노인을 만남으로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음성뿐만 아니라 챗바퀴 도는 듯한 내용상의 단조로운 언행들, 寬容

主義者라 하면서 동시에 體罰主義者로 변하는 자기 모순, 그리고 이상한 행동 등은, 반발의 대상을 넘어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더운 날씨로 인한 피곤때문에 Pigeon House로 가는 것이 좌절되고 신선한 동경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도피 행위마저 俗物根性의 노인에 의해서 부서져 버린 후 결국 '나'는 모험을 시도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와 구원과 평정의 상태를 회복한다. 언제나 약간 무시하고 있었던 Mahony가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정신적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마지막 부분은 현실의 의미와 모험의 실상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정규적인 삶과 기존의 틀에 반발하면서 모험을 시도하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와 구원이 기존의 관계인 친구 Mahony에게서 구해지는 irony를 작가는 넉넉히 보여주고 있다.

"Araby"에서의 自我對 他我的 갈등 양상은 크게 둘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나'와 아저씨의 갈등이다. '나'는 애뜻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Mangan의 누나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Araby라는 바자회에 가고자 한다. 시장이 열리기까지의 지루한 날들 때문에 수업도 망치고 온통 그녀의 영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막상 Araby가 열리는 날 아저씨가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만다. 아저씨는 '나'와의 약속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에 대한 낭만적 사랑의 감정 속의 '나'와,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기성 세대의 철저한 무관심, 이러한 대립과 갈등 관계는 어린 세계의 꿈의 좌절과 어른 세계에 대한 환멸로 이어진다. Joyce는 이 부분에서의 아이의 감정을 '나는 웃지 않았다(I didnot smile)'는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대립 관계는 아저씨의 무관심으로, 파장이 다 되어서 늦게 도착한 시장 안에서의 自我對 他我와의 심리적 갈등 관계라 할 수 있다. 바자회의 한 도자기 상점에서 보게 된 젊은 남녀들의 부질없는 言語行爲, 의미 없는 죽어있는 언어들의 낱말은 '나'에게 또 하나의 환멸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다음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 O, I never said such a thing !

- O, but you did !  
 - O, but I didn't !  
 - Didn't she say that?  
 - Yes, I heard her.  
 - O, there's a...fib !<sup>10)</sup>

Ireland사람이면 영국식 accent를 사용하는 속된 젊은이들의 대화에 의해서 東方의 마력은 사라지고 여자 점원의 비속한 言行으로 말미암아 소년의 성스런 사랑도 초라한 현실로 대치되고 마는 것이다. Joyce가 “Araby”의 첫 부분에 North Richmond가의 막다른 골목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텅 빈 집, 음산한 창고 안의 습습한 책, 녹슨 자전거 펌프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 소설의 마지막에 ‘내’가 느끼는 감정의 空虛를 암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여겨진다. 비평가 Hugh Kenner는 좌절과 환멸의 상황을 ‘空虛’의 epiphany라고 불렀는데, “The Sisters”에서 Cotter영감의 이야기, “An Encounter”에서의 이상한 노인의 일방적 獨白, 그리고 “Araby”에서의 젊은 남녀들의 대화 등은 이런 부정적 에피파니(negative epiphany)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세속에 물들지 않은 自我와, 도덕적, 정신적으로 마비된 非我와의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반응 유형에서 볼 때 거의 自我에 의한 감정 억압의 형태로 끝나고 있다. 작가 Joyce가 이 세계의 단편 속에 거의 아이들의 언어를 삽입하지 않은 것도 이점에서 그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천진 난만한 아이들의 세계나 심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이외에, 좀 더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투시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0) James Joyce (1979),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ed., Penguin Books, p.35. 이하 본문의 인용은 본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page를 명시키로 한다.

## 2. 本能 對 道德律

인간이나 동물은, 교육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자극에 대해 生得的 (innate)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자기의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生物學的, 心理的, 그리고 社會的 平衡狀態를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의 충족을 위한 욕구가 나오기 마련이며, 이 때의 통일적인 반응 형식이나 행동 경향의 특성을 本能이라 볼 수 있다.

Joyce는 *Dubliners*에 크게 세가지 유형의 본능을 설정하고, 이들과 도덕률과의 갈등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데 性的本能(sexual instinct)과 공격적 본능(aggressive instinct), 그리고 자유 지향적 본능(freedom-oriented instinct)이 그것이다. 그러나 *Dubliners*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인의 성적만족과 종족의 번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본능적 에너지로서의 순수한 성적 본능을 갖고 있지 못한다. 거기에 돈이나, 자유에의 욕구, 그리고 불안전하고 모순된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가 개입되면서 추악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다. 자기 주장, 야심, 경쟁심, 성공하고 싶은 욕구 등의 공격적 본능 또한 타고난 성질이나 종교적 이유, 사회 전체적 마비 증세 등에 의해서 歪曲되고 變質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本能 대 道德律의 갈등 양상은 좀 더 엄밀히 말해서 변질된 본능 대 도덕률과의 갈등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내인성(內因性) 갈등 원인으로서의 本能과 외인성(外因性) 갈등 원인으로서의 도덕률을 역시 *Dubliners*에서 일대 일 대응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본능 대 도덕률 둘 다 등장 인물들의 심리 상태 속에서는 접근의 대상인 동시에 회피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Boarding House”에 등장하는 Doran씨는 매력적이고 날씬한 몸매의 하숙집 처녀 Polly와 성적 본능을 충족한다. Polly의 어머니는 자기의 딸과 Doran씨와의 관계를 눈치채나 묵인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자 딸이 잃은 정조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본능은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자유로이 있으라고 명령했다. 일단

결혼해 봐라. 넌 이제 끝장이다.”라는 그의 자유에의 본능은, 본능 충족의 反對給付로서 결혼을 강요하는 Polly의 어머니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된다.

But what would grammar matter if he really loved her? He could not make up his mind whether to like her or despise her for what she had done, Of course, he had done it too. His instinct urged him to remain free, not to marry. Once you are married you are done for, it said. (p.66)

Doran씨는 그런 대치 상태에서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그의 고민거리에 대해 다시는 듣지도 않아도 되는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싶었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결국 굴복하고 만다. 社會輿論이라고 하는 기존 세계의 가치관, 종교적 중압 등에 의해서 Doran씨와 Polly 어머니와의 대립은 후자의 完勝으로 싱겁게 끝나버린다. 원시 상태의 원초적 인간에 비해서 기존의 도덕률이나 종교적 규율에 마비된 현대인들이 그런 것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Joyce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Counterparts”에서는, 억눌린 자기 주장 욕구 때문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결국 그러한 본능은 직장이라는 기존세계의 거대한 重壓에 눌린 채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며, 거기에서도 정력의 약화로 인한 또다른 성격의 重壓에 의해 좌절할 수 밖에 없는 공격적 본능을 그려내고 있다. 인상부터 Farrington과 Alleyne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먼저 Farrington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The man muttered *Blast him!* under his breath and pushed back his chair to stand up. When he stood up he was tall and of great bulk. He had a hanging face, dark wine-coloured, with fair eyebrows and moustache : his eyes bulged forward slightly and the whites of them were dirty. He lifted up the counter and, passing by the clients, went out of the office with a heavy step. (p. 86)

또한 Alleyne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Mr Alleyne, a little man wearing gold-rimmed glasses on a clean shaven face, shot his head up over a pile of documents. The head itself was so pink and hairless that it seemed like a large egg reposing on the papers. (p. 87)

Alleyne의 일방적 잔소리와 명령에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음을 감지하고서, 반복되는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소? (Do you hear me now?)’라는 의문문에 Farrington은 ‘Yes’라고만 짧게 대답하면서 공격적 본능을 억누른다. Alleyne의 번득이는 두개골을 빤히 노려보고 그것이 얼마나 말랑말랑할까를 추측하면서 그의 발작적 분노를 삭히는 것이다. 산적한 업무로부터의 절망적인 기분과, 피곤, 짜증, 나태로부터의 억눌린 감정을 분출시키기 위해 Farrington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을 마시는 일이었다. 어느 어두컴컴한 주점에서 흑맥주 한잔을 마시고 신속하게 사무실에 들어 왔으나 또 Alleyne씨의 호출이 대기하고 있다. 다행히 Alleyne씨가 Delacour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사무실로 나온 Alleyne이 무차별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을 때 Farrington은 자기 앞에 있는 mannequin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억제한다. “자네, 날 바보로 아는거야? 나를 바보 천치로 생각하느냐고?”라는 앨런의 다그침에, 그는 순간적으로 불쑥 “제가 타당한 질문이 아니군요”라고 대답한다.

*-You-know-nothing*. Of course you know nothing, said Mr Alleyne. Tell me, he added, glancing first for approval to the lady beside him, do you take me for a fool? Do you think me an utter fool?

The man glanced from the lady's face to the little eggshaped head and

back again ; and, almost before he was aware of it, his tongue had found a felicitous moment :

-I don't think, sir, he said, that that's a fair question to put to me. (p. 91)

재치있는 말을 한 장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그의 용수에 깜짝 놀라지만 Fallington의 공격적 본능은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한다. 오히려 Fallington은 그의 말대꾸를 후회하며 비굴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절감한다. 가족 부양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의무에서 비롯된 직장에서의 강요된 윤리는 인간의 공격적 본능을 철저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Fallington은 사실, 공격적 본능을 발산할 만한 에너지도 이미 고갈되어 버리고 없다. 그는 전당포에 시계를 맡긴 후 그 돈으로 술을 마시다가 Weathers라는 코메디언이자 곡예사를 만나게 된다. 마침내 그와 팔씨름 시합을 하게 되지만 Fallington은 무참하게 두 번 연속 짐으로써 모든 동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술값마저 부담하게 된다. 사무실에서 불장 다 봤고 시계를 저당잡혔으며 돈은 몽땅 써버린 후 타는 듯한 노여움과 복수심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모든 억눌린 공격적 본능을 그의 자식에게 분출시키는 irony를 범한다. 가장으로서의 윤리, 도덕률 때문에 직장에서의 모든 수모에 대한 공격적 본능을 억제해 온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식을 잔인하게 매질하는 상황은 不條理하고도 不合理的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實存主義문학에 접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 Painful Case"의 대립 양상은 자유를 추구하는 본능과 기존 사회적 도덕률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성적본능을 억제하면서 평탄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Duffy씨는 한 쓸쓸한 극장 안에서 가정 주부인 Sinico부인을 만나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 무질서를 거부하고 土土의 영향을 받은 듯이 음침한 성격을 소유한 Duffy씨와, 지적이고 도전적 성격의 Sinico부인은 그 외양부터 극히 대조적이다. 먼저 Duffy의 인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Mr Duffy abhorred anything which betokened physical or mental disorder.



A mediaeval doctor would have called him saturnine. His face, which carried the entire tale of his years, was of the brown tint of Dublin streets. On his long and rather large head grew dry black hair and a tawny moustache did not quite cover an unamiable mouth. His cheekbones also gave his face a harsh character, but there was no harshness in the eyes which, looking at the world from under their tawny eyebrows, gave the impression of a man ever alert to greet a redeeming instinct in others but often disappointed. (p. 108)

또 Sinico부인의 모습은 자유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Her face, which must have been handsome, had remained intelligent. It was an oval face with strongly marked features. The eyes were very dark blue and steady. Their gaze began with a defiant note but was confused by what seemed a deliberate swoon of the pupil into the iris, revealing for an instant a temperament of great sensibility. The pupil reasserted itself quickly, this half-disclosed nature fell again under the reign of prudence, and her astrakhan jacket, moulding a bosom of a certain fulness, struck the note of defiance more definitely. (pp. 109-110)

그러나 Duffy씨의 서가에 꽂힌 두 권의 책, '워즈워드 전집(A Complete Wordsworth)'과 '메이누스 교리 문답서(The Maynooth Catechism)'는 그의 가치관이나 知的 成熟度를 암시하고 있다. 즉, 낭만주의적이고 자유 지향적 성향의 Wordsworth시집을 보면서 신학적 교리와 규율, 질서를 담고 있는 교리서를 본다는 것은 그의 지적 종교적 미숙성, 내지는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知的 未熟狀態는 Sinico 부인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노출되고 있으며, 그녀의 참혹한 죽음의 원인이 됐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음악회를 가고, 한적한 곳을 산책하고, 그녀의 작은 집에서 둘이서만 저녁을 보내

기도 하면서 Duffy씨는 그녀와의 교제를 異國의 식물을 감싸주는 따뜻한 흙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날 밤, 그의 영혼의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가 흥분의 징조를 보이더니 그의 손을 정열적으로 잡고 그녀의 뺨에 갖다 대게 된다. 그 뒤로 그들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만다. 성적 본능과 자유에의 본능은 後者が 완승을 거둔 상태로 끝나며, 4년 후에 Sinico부인은 Sydney Parade역에서 완행 열차의 기관차에 치여 죽음을 당한다.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Duffy씨는 자기의 위선적 도덕률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와 헤어진 후 쓴 글은 그의 도덕률과 본능에 바탕을 둔 실제 행위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와의 교제를 이국의 식물을 감싸주는 따뜻한 흙으로 인식하고 내적 생활에 정서를 부여하는 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Love between man and is impossible because there must not be sexual intercourse and friendship between man and woman is impossible because there must be sexual intercourse. (p. 112)

이렇게 명쾌한 자기 논리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분명 가치와 행동, 논리와 본능 사이의 불일치 관계를 의미한다.

그는 그 밖에 별 도리가 없었지 않았느냐고 자문해 본다. 그녀와 기만의 희극을 더 이상 감행할 수도 없었고 그녀와 공개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한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빼앗고 죽음을 선고한 자신의 道德觀을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이 삶의 향연으로부터 추방된 자(He had been outcast from life's feast.)임을 느끼는 것이다. 자유에의 본능과 도덕률과의 대립관계는 결국 칼로 두부를 자르듯 어느 한쪽의 일반적 優劣關係가 있을 수 없음을 자인한면서 Duffy는 혼자임을 절감한다.

### 3. 物質 對 精神

유럽의 서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 공업화된 유럽 대륙이나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物質主義化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Ireland 역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들 나라와 마찬가지로였으며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타락한 양상마저 띠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예술, 우정, 사랑 그리고 정치 등이 物質主義, 拜金主義에 의해 물들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돈을 축으로 하여 공전하는 듯한 상황을 Joyce는 담담하면서도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포착해 내고 있다. 인간의 정신 세계가 물질주의에 의해 오염되고 마비되면서 형이상학적 가치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은 곧 현대인들의 모습임을 그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외인성(外因性) 갈등 원인으로서의 物質과 내인성(內因性) 갈등 원인으로서의 精神은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Dubliners*에서 이들은 뚜렷한 갈등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등장 인물들의 精神은 이미 대부분 物質에 의해서 오염되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物質 역시 접근하고 싶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회피하고 싶은 대상(the approach-avoidance type)으로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에 내재하고 있다. "A Little Cloud"에서 꼬마 Chandler의 미묘한 심리 상황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精神 또한 접근하고 싶은 대상이면서 회피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A Painful Case"에서 Sinico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Duffy가 겪는 심리 상태를 그 예로 들만하다.

작가 Joyce는 등장 인물들의 외형과 행동 묘사를 통해서 미리 그들의 갈등 상황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철저한 사실주의적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Mother"에서는 Kearney 부인과 Fitzpatrick 의 성격이나 행동 묘사를 통해 그들을 대립적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먼저 Kearney 부인은 매우 대담하고 자기 주장이나 태도가 분명한 성격으로 묘사된다.

Miss Devlin had become Mrs Kearney out of spite. She had been educated in a high-class convent where she had learned French and music. As she was naturally pale and unbending in manner she made few friends at school. When she came to the age of marriage she was sent out to many houses where her playing and ivory manners were much admired. She sat amid the chilly circle of her accomplishments, waiting for some suitor to brave it and offer her a brilliant life. (p.136)

하지만 Pitzpatrick 씨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He was a little man with a white vacant face. She noticed that he wore his soft brown hat carelessly on the side of his head and that his accent was flat. He held a programme in his hand and, while he was talking to her, he chewed one end of it into a moist pulp. He seemed to bear disappointments lightly. (p.139)

Kearney 부인은 Eire 독립 협회가 주관하는 대음악회에 그녀의 딸 Kathleen Kearney 양이 4번에 걸친 반주를 해주는 댓가로 8기니를 받기로 Holohan 씨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린다. 문화적으로 피폐된 더블린에서의 4번에 걸친 관객동원 실패가 그 원인일 수 있겠지만 작가 Joyce 는 그러한 본질적 문제 상황에 몰육주의에 저들대로 저든 Kearney 부인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Holohan 씨를 등장시켜 Dublin 사람들의 低劣한 文化意識과 道德意識을 해부해 내고 있다. 돈 문제에 관한한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는 Kearney 부인과 그 딸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 어떤 예술적 목적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 또 계약을 체결한 Holohan 씨나 독립 협회의 사무장인 Pitzpatrick 씨 역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속성에 젖어 있을 뿐이다. 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들의 갈등은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상대방

을 비난하며 끝나버리고 만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서의 第三者들은 Kearney 부인을 비난한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횡포를 당연시하면서 거기에 도전하고 반발하는 세력에 대해 관심이나 동정을 갖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정체적이고 보수적 속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돈과 가치 부재의 갈등 유형은 “After the Race”에서의 Doyle의 모습을 통해서도 관찰될 수 있다.

Ireland 의 빈곤과 무기력 상태는, 유럽 대륙의 富와 工業과의 대조를 이루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Doyle 과 그의 유럽 대륙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모습이나 그들간의 대화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극명한 상징이다.

Doyle과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 성립의 원천적 힘은 어떤 理念이나 主義, 思想이 아니고 돈이다. 그의 아버지 역시 돈 때문에 진보적 국민당원을 포기하고 푸주를 경영, 돈을 벌었으며 마침내 Dublin 신문들이 豪商이라 부를 만한 위치를 점유한다. 그의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 대학 교육을 받게 하고 법률을 공부하게도 하지만 아들 Doyle은 공부에 열을 쏟지도 않았으며 한동안 난봉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은근히 아들의 방종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며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 주고 집으로 데려온다. 또 프랑스에서 가장 큰 호텔 몇 개를 갖고 있는 Segouin 과 사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더라도 알아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父子는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拜金主義에 젖어 있는 Doyle 이지만 돈이 얼마나 어렵게 모아지는가 즉, 돈 뒤에 잠재해있는 노고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지긴 했지만 무모하게 돈을 쓰지 않고 적절한 한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인내와 슬기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상태 역시 물질주의의 또 다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그런 인내와 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Doyle의 집에서 벌어지는 만찬, 船上에서 전개되는 술과 춤과 도박의 모습은 돈을 매개로 해서 형성된 우정 관계의 타락과 가치 부재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차용증을 써가며 가장 많이 돈을 잃은 Doyle 이 도박판이 끝나고 아침이

왔을때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愚行을 덮어줄 무감각 상태였다.

“Two Gallants”에서는 성도덕의 타락상과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애정 행각의 추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별로 할 일이 없는 젊은이들의 무기력한 표정이나 행위는 물론 그들의 부도덕한 의식이나 가치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 부재 상태는 결국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분리될 수는 없다. Dublin 이라는 마비된 도시가 젊은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의식이나 행위가 희망에 찰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모습 자체를 Dublin 의 형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 Joyce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Lenehan과 Corley의 모습을 각각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먼저 Lenehan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그려지고 있다.

He was squat and ruddy. A yachting cap was shoved far back from his forehead and the narrative to which he listened made constant waves of expression break forth over his face from the corners of his nose and eyes and mouth. Little jets of Wheezing laughter followed one another out of his convulsed body. His eyes, twinkling with cunning enjoyment, glanced at every moment towards his companion's face. Once or twice he rearranged the light waterproof which he had slung over one shoulder in toreador fashion. His breeches, his white rubber shoes and his jauntily slung waterproof expressed youth. But his figure fell into rotundity at the waist, his hair was scant and grey and his face, when the waves of expression had passed over it, had a ravaged look. (pp.49~50)

Corley 역시 Lenehan에 비해 별로 다를바 없는 형상을 하고 있다.

Corley was the son of an inspector of police and he had inherited his father's frame and gait. He walked with his hands by his sides, holding himself erect and swaying his head from side to side. His head was large,

globular and oily; it sweated in all weathers; and his large round hat, set upon it sideways, looked like a bulb which had grown out of another. He always stared straight before him as if he were on parade and, when he wished to gaze after someone in the street, it was necessary for him to move his body from the hips, At present he was about town. (p.51)

혀가 지치도록 자기 말만 하고, 지나가는 女子에게 미소를 던져대며 소일하다가 술좌석의 기회가 오거나 女子 이야기만 나오면 그들은 할 일을 만난 것처럼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만나게 되는 여자 역시 그들의 모습과 다름없다.

She had her Sunday finery on. Her blue serge skirt was held at the waist by a belt of black leather. The great silver buckle of her belt seemed to depress the centre of her body, catching the light stuff of her white blouse like a clip. She wore a short black jacket with mother-of-pearl buttons and a ragged black boa. The ends of her tulle collarette had been carefully disordered and a big bunch of red flowers was pinned in her bosom, stems upwards. Lenehan's eyes noted approvingly her stout muscular body. Frank rude health glowed in her face, on her fat red cheeks and in her unabashed blue eyes. Her features were blunt. She had broad nostrils, a straggling mouth which lay open in a contented leer, and two projecting front teeth. (pp.55~56)

돈과 정력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돈을 좀 가진 순박한 처녀를 만나 아늑한 구석에서 정착해 행복하게 살고 싶은 Lenehan 의 의식 또한 무기력 그 자체라 할 만하다. 삶을 음미하고 고민하며 극복해 보려는 실천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윤리적 마비, 희망 없는 의식의 황무지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Corley 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Lenehan 에게 조그만 금화 하나를 보여주며 나타난 Corley 의 모습, 그들의 만족한

미소와 목적 달성에의 합치된 기쁨. 그 상황이야말로 가치 매물, 가치 전도의 가장 극명한 구체적 상태라 할 만하다.

#### 4. 監禁 對 脫出

Joyce의 여러 작품에 있어서의 신화적 배경은 그의 소설 구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전개과정에서도 주제를 이끌어가는 방향 역할을 한다. 특히 *Dubliners*에 있어서 회랍의 Daedalus 신화를 통한 상징과 이미지의 발전 과정은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로 거론 할 수 있을 것이다. Crete 섬의 Labyrinth 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밀납으로 날개를 만들어 탈출을 시도하는 Daedalus의 의미지는 억압과 마비의 속박 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Dubliners*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 그러한 시도를 행동으로 옮기려하는 사람들 모두가 실패하고 마는 상황은 탈출한 Icarus가 결국 추락하여 익사하고 마는 것과 유사하다.<sup>11)</sup> Dublin 사람들은 좁게는 Dublin 교외로, 넓게는 바다 건너 멀리 외국으로의 탈출을 염원하고 시도한다. 그러나 등장 인물들의 갈등 대상이나 갈등 원인도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Eveline"에서 보는 것처럼 구속과 감금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Eveline이 결국 구속 상태로의 환원을 결정하고 복귀하는 상황은, 감금 상태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접근의 대상(the approach-avoidance type)이 되는 이중성을 암시하고 있다. "The Boarding House"에서의 Doran의 모습이라든지, "Counterparts"에서의 Farrington의 갈등 심리도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 앞에서 겪는 인간의 양면적 갈등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An Encounter"에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학교 생활의 지루함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소년들의 모험 욕구와 그 실행 과정이 제시된다.

The mimic warfare of the evening became at last as wearisome to me as the routine of school in the morning because I wanted real adventures to

11) 韓龍愚編(1988), 「그리스로마신화」, 홍신문화사, pp.152~156.



happen to myself. But real adventures, I reflected, do not happen to people who remain at home : they must be sought abroad. (p.21)

하지만, 그런 모험에의 모의는 쉽게 현실로 옮겨지지 못한다. 현실의 구속이 그만큼 강하고,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소년들의 용기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모험을 모의한 세 소년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만다. 모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한 채 깨어나 Liffey 강을 건너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다. 또 그들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피곤한 기성 세대를 만나게 되고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

“Eveline”에서도 여주인공 Eveline 은 피곤하고 무료하지만 잠자리와 먹을 걱정이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

Escape ! She must escape ! Frank would save her, He would give her life, perhaps love, too. But she wanted to live. Why should she be unbappy? She had a right to happiness. Frank would take her in his arms, fold her in his arms, He would save her. (p.40)

그러나 결국 Eveline 은 탈출을 실행하지 못하며 술주정뱅이 폭군인 아버지에게로, 피로하고 무료한 현실로 돌아오고야 만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곳에서 탈피하는 실천적 노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작가는 그녀와 Frank 의 행동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준다.

-Come !

No ! No ! No ! It was impossible. Her hands clutched the iron in frenzy. Amid the seas she sent a cry of anguish !

-Eveline ! Evvy !

He rushed beyond the barrier and called to her to follow. He was shouted at to go on but he still called to her. She set her white face to him,

passive, like a helpless animal. Her eyes gave him no sign of love of farewell or recognition. (p.41)

“The Boarding House”에서도 Bob Doran 은 하숙집 주인의 딸 Polly 와 맺은 정사 때문에 결혼을 강요당한다. 딸이 잃은 정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결혼하는 것 밖에 없다는 Polly 어머니의 증압적 강요에 대해서, Doran 은 끈질기게 자유에로의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가톨릭교인이 운영하는 주류상에 13년간이나 근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性的으로 부도덕하다는 평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Bob Doran은 Polly 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길 이 두가지 중 양자 택일의 갈림길에 봉착하게 된다. 그의 본능은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자유로이 있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평판과 종교적 계율의 강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직장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다. 결국 그 스스로가 약간 경멸하고 있었던 Polly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家系를 수용하면서 그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야 한다.

“A Little Cloud”에서의 Chandler는 출세하고픈 강렬한 본능을 가진 채 살아간다. 그러나 타고난 그의 기질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자기 현실은 이를 막고 그의 갈등과 번민의 집으로 자리한다. 그의 모습부터 그의 성격을 선명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출세한 그의 친구 Gallaher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Chandler은 마치 연약하고 소심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He was called Little Chandler because, though he was but slightly under the average stature, he gave one the idea of being a little man. His hands were white and small, his frame was fragile, his voice was quiet and his manners were refined, He took the greatest care of his fair a silken hair and moustache and used perfume discreetly on his handkerchief. The half-moons of his nails were perfect and when he smiled you caught a glimpse of a row of childish white teeth. (p.70)

그의 의식의 내용도 이 작품이 전개되는 시간적 공간인 초가을 황혼 무렵과 비슷하다.

The glow of a late autumn sunset covered the grass plots and walks. It cast a shower of kindly golden dust on the untidy nurses and decrepit old men who drowsed on the benches; it flickered upon all the moving figures—on the children who ran screaming along the gravel path and on everyone who passed through the gardens. He watched the scene and thought of life; and (as always happened when he thought of life) he became sad. A gentle melancholy took possession of him. He felt how useless it was to struggle against fortune, this being the burden of wisdom which the ages had bequeathed to him. (p.71)

8년 만에 처음 만나자마자 설 사이 없이 지결여대는 Gallaher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약간 환멸을 느낀다. 또 그의 말투나 방식에서도 저속한 면을 발견하며 심리적 거부 반응을 체감한다. 하지만 London 신문계의 소란과 경쟁에서 살아온 결과라 생각하면서 Chandler는 그를 부러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양면의 심리를 갖는다.

술 좌석이 끝났을 때 호탕한 Gallaher의 모습에 의해서 Chandler는 자신의 세심한 성품의 균형이 이미 깨져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걸쳐서 자신을 지배해온 어떤 한계상황을 인식한다. Joyce는 그때 Chandler가 갖고 있는 의식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e adventure of meeting Gallaher after eight years, of finding himself with Gallaher in Corless's surrounded by lights and noise, of listening to Gallaher's stories and of sharing for a brief space Gallaher's vagrant and triumphant life, upset the equipoise of his sensitive nature. He felt acutely the contrast between his own life and his friend's, and it seemed to him unjust. Gallaher was his inferior in birth and education. He was sure that he

could do something better than his friend had ever done, or could ever do,  
something higher than mere tawdry journalism if he only got the chance.  
what was it that stood in his way? His unfortnate timidity ! (p.80)

자신의不幸의 원인을 '불행한 수줍음(unforfunate timidity)'으로 인식하고, 출세  
하지 못한 자신과 성공한 친구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心理的 갈등 속에서  
Chandler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결혼한  
남자로서 느끼는 작은 만족과 그 주변에 갇린 구속된 의식을 체감하면서 또 다시 갈  
등속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기분 속에서 Chandler는 대담하고 활발했던  
Biron의 시를 꺼내 읽는다. "어떤 젊은 여인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 시의 내용은  
Chandler의 황량한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ushed are the winds and still the evening gloom,  
Not'e'n a Zephyr wanders through the grove,  
Whilst I return to view my Margaret's tomb  
And scatter flowers on the dust I love. (p. 83)*

그러나 잠자던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중신형을 선고 받은 죄수 처  
럼 노여움으로 떨며 고향을 질러댄다.

It was useless, he couldn't read. He couldn't to anything. The wailing of  
the child pierced the drum of his ear. It was useless, useless! He was a  
prisoner for life, his arms trembled with anger and suddenly bending to the  
child's face he shouted :  
-stop ! (p.84)

하지만 Chandler 역시 그러한 현실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채 부인의 증오에 찬 질  
책을 더듬는 말투로 변명해 가면서 自賣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Counterparts”에 등장하는 Farrington은 직장에서의 중압적 강요에 반발하면서 피곤하고 짜증스런 현실과 그 대상에 대해 ‘빌어먹을 자식 (Blast him!)’을 중얼거리지만 대항해서 싸워볼 엄두는 내지 못한다. 그러나 일상 업무에서의 억압된 감정은 그의 생활의 어느 곳에서도 해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술집을 찾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보지만 오히려 그는 그런 도피처에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자기 행위에 대한 자책감에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Weathers라는 젊은이와의 팔씨름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지고 나서는 이제 탈출할 기력마저 상실한 채,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타협하고 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절감한 채,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He had done for himself in the office, pawned his watch, spent all his money; and he had not even got drunk. He began to feel thirsty again and he longed to be back again in the hot reeking public-house. He had lost his reputation as a strong man, having been defeated twice by a mere boy.  
(p.97)

그는 그런 억압된 감정을 안고 다섯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불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만으로 애꿎은 아들 Tom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해댄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도망길이 없는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아파 비명을 지른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쥐고 허공을 향했으며 목소리는 공포로 떨었다. 그때의 꼬마 Tom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The little boy looked about him wildly but, seeing no way of escape, fell upon his knees.

—Now, you’ll let the fire out the next time! said the man, striking at him viciously with the stick. Take that, you little whelp!

The boy uttered a squeal of pain as the stick cut his thigh. He clasped his hands together in the air and his voice shook with fright.

-O, pa! he cried. Don't beat me, pa! And I'll...I'll say a *Hail Mary* for you...I'll say a *Hail Mary* for you, pa, if you don't beat me...I'll say a *Hail Mary*... (p.98)

아들의 그러한 형상은, 현실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채 좌절과 분노와 자책 속에서 감금되어 있는 Farrington 자신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사방을 보아도 도망갈 길 없는 Tom의 현실은 결국 Dublin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보편적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극단의 한계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聖母誦을 기도들이겠다는 처절한 Tom의 외침은 구도 자적 희망의 영상으로 메아리치고 있는 듯하며 Joyce가 추구하는 문학정신으로 승화되고 있다.



#### IV. 葛藤의 解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Dubliners*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심리적 갈등양상과 정신적 마비상태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15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단편집이 19세기적 단편소설과 그 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의 단편소설이 작중 인물의 행동 및 대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의 성격 묘사 또는 줄거리 묘사에 관심이 많았다면, Joyce소설은 분위기와 세팅(setting)을 강조함으로써 효과의 통일성(unity of effect)을 기하고 있다. 즉 상징과 거듭되는 주제의 정교한 대응, 음악적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농축성을 노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의 사이클(cycle of stories)'을 통해서 효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Joyce는 그의 15개의 단편들을 Boccaccio의 "The Decameron" 식이나, 10세기 경의 동양의 전설집인 "Arabian Nights"처럼 배열하지는 않았다. 그는 15개의 단편들을 크게 네가지 부류로 나누어 Dublin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시하려고 했으며, 유년기, 청년기, 성숙기 그리고 대중 생활기 등의 순서로 그 서열을 매겼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가 Trieste에서, 런던의 출판업자인 Grant Richards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My intention was to write a chapter of the moral history of my country and I chose Dublin for the scene because that city seemed to me the centre of paralysis. I have tried to present it to the indifferent public under four of its aspects : childhood, adolescence, maturity, and public life. The stories are arranged in this order. I have written it for the most part in a style of

---

12) 제임스 조이스(1907), 「더블린 사람들, 亡命者들」, 김종건編譯(1989), 汎友社, p.503.

scrupulous meanness and with the conviction that he is a very bold man who dares to alter in the presentment, still more to deform, whatever he has seen and heard.<sup>13)</sup>

Dubliners가 뛰어난 단편소설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5개의 단편 중 맨 마지막에 배열된 “The Dead”는 *Dubliners*에서 펼쳐지는 모든 갈등 양상을 수렴하면서 총체적인 그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14개의 작품을 끝내고 약 1년만에 씌어진 이 걸작품은 *Dubliners* 전체적 구조에 있어 climax에 해당하며 Joyce의 文學情神과 *Dubliners*의 창작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만하다.

다른 단편들과는 달리 Joyce는 여기에서 Dublin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폐허 상태를 노출시키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The Dead”를 제외한 14개의 작품 속에서 제시되었던 여러가지 갈등 양상들이 상징적으로 다시 전개되고, 주인공 Gabriel은 복합적 갈등 상태로부터의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각성과 變容(transfiguration), 그리고 탈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무도회에서 전개되는, Gabriel 과 그의 춤 상대자인 Ivors 양과의 갈등은 自我와 他我와의 대립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그녀는, 영국에서 진행되는 보수파 신문인 “The Daily Express”지의 기고가이며, Ireland 의 고유어와 전통을 무시하는 Gabriel 을 경멸적으로 조롱한다. 그러나 Gabriel은 생존을 위해서, 또 文學은 정치를 초월한다는 신념으로 그 잡지에 글을 쓰는 것이 결코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또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 Ireland 서부 해안인 Aran 섬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는 Ivors 양의 제안에 Gabriel 은 외국의 언어들을 접해 보기 위해 유럽 대륙 쪽으로 가기로 이미 정해져

---

13) Morris Beja(1973), ed.,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Macmillan, p.38.



있다고 대답한다. 자기 나라말을 접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왜 외국의 언어쪽에 관심이 더 많느냐며 그녀는 Gabriel의 민족 의식 부재 상태를 공격한다. 그녀의 험난에 당황해 하다가 그는 불쑥 Ireland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며 강한 민족주의자 Ivors 양에게 반격한다.

-And haven't you your own land to visit, continued Miss Ivors, that you know nothing of, your own people, and your own country?

-O, to tell you the truth, retorted Gabriel suddenly, I'm sick of my own country, sick of it! (p.189)

주어진 굴레, 生得的 한계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체험과 변신을 회구하는 Gabriel의 모습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Ivors의 의식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조그만 동전을 둘러 싸고 Gabriel과 Lily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터라,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Lily에 대한 Gabriel의 농담은 그녀의 가시돋힌 응수에 의해서 어색하게 중단된다.

-O, then, said Gabriel gaily, I suppose we'll be going to your wedding one of these fine days with your young man, eh?

The girl glanced back at him over her shoulder and said with great bitterness :

-The men that is now is only all palaver and what they can get out of you. (p.178)

얼굴을 붉히며, 주머니에서 동전 한 닢을 꺼내 Lily에게 건네지만 그것 역시 여러 번 거절당한 후에 겨우 받아들여진다. 돈을 둘러싼 그들간의 미묘한 갈등은 두 사람간의 심리적 상황의 충돌이라고도 할 만하다. 스스로 이미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Lily와 아직, 그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그녀에게 베풀었던 행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生中死(death in life) 상태의 Gabriel 간의 갈등인 것이다. Joyce는

Gabriel의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기성 세대의 가치 부재 내지는 의식의 마비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또 파아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Gabriel이 꺼내는 이야기 또한 그의 돈에 대한 그의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아내 Gretta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욕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Gabriel은 어설픈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화제 역시 돈에 대한 것에서 출발한다. 감정의 억제 수단으로서 그런 화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Gabriel 의 의식은 극단의 속물 상태를 노출하게 된다.

셋째로, 숙소에서 전개되는 Gabriel 의 욕정 상태와,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죽은 Michael Furey 를 생각하는 아내 Gretta 의 정서와의 갈등 상황은 본능과 성도덕과의 갈등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욕정을 억제하기 위해 손톱으로 손바닥을 찌르는 모습이라든가 꺼안고 싶은 욕망으로 몸을 부들부들 떠는 상태는 Gabriel 의 본능적 욕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He could have flung his arms about her hips and held her still for his arms were trembling with desire to seize her and only the stress of his nails against the palms of his hands held the wild impulse of his body in check. The porter halted on the stairs to settle his guttering candle. They halted too on the steps below him. In the silence Gabriel could hear the falling of the molten wax into the tray and the thumping of his own heart against his ribs.  
(p.215)

그러나 소녀시절의 애인 Michael Furey를 잊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The Lass of Aughrim”을 듣고서 그녀의 옛날 추억을 이야기 했을 때 그의 욕정은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 희미한 분노를 느끼며 어떤 불가사의한 복수심마저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Gretta의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경청한다. 감정에 압도되어 흐느낌에 복받쳐 울던 아내가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잠들었을 때 Gabriel 은 비로소 혼자가 된다. 그리고는 남편인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역할을 해 왔는 지

를 생각해 보며 그녀와 자신이 한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살아온 적이 없는 듯이, 잠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Gabriel이 느끼는 심리적 공허상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She was fast asleep.

Gabriel, leaning on his elbow, looked for a few moments unresentfully on her tangled hair and half-open mouth, listening to her deep-drawn breath. So she had had that romance in her life : a man had died for her sake. It hardly pained him now to think how poor a part he, her husband, had played in her life. He watched her while she slept as though he and she had never lived together as man and wife. His curious eyes rested long upon her face and on her hair : (p.222)

허망하고 초라한 감정 속에서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Gabriel 은 비로소 자기인식의 epiphany 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심리적 갈등이나 대립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며 창조적 변용(creative transfiguration)을 통해서 정신적 부활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The Dead”의 마지막 부분, 즉 Gabriel 이 잠든 부인 곁에서 내리는 눈을 보며 새로운 정신 세계로 변용해 가는 모습은 자못 종교적이다. 먼저, 물이라는 액체의 변용물인 눈은 신의 섭리를 상징하며 그 하얀색깔은 순수함, 깨끗함을 상징한다. 또 어느 장소를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내리는 눈의 모습은 진리의 보편성을 상징하며 신의 은총을 암시한다. 결국 녹아서 물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온갖 생물들에게는 새로운 탄생과 생명력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sup>14)</sup>

살아있는 Gabriel과 죽은 Michael Furey의 영적교감(spiritual communion)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산 자가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

14) 제임스 조이스(1907), 「더블린 사람들, 亡命者들」 김중건編譯(1989), 汎友社, p.503.

가 산 자로 변화하는 모습은 색즉시공(色卽是空) 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의 佛敎思想에 접맥되고 있다. 또 서쪽을 향한 여행을 출발할 때가 되었다.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set out on his journey westward.)는 Gabriel의 마음가짐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西方淨土를 암시하며 모든 정신적 번민이나 갈등이 없어진 해탈(解脫)과 법열(法悅)의 경지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Dubliners*가 금세기 대표적 단편소설로 인정받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효과의 통일성(unity of effect)'을 노리기위한, Joyce의 치밀한 세팅(setting) 설정과 15개 단편들의 유기체적 결합에 있음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A Painful Case"에서나 "Grace"에서도 주인공들은 자기인식에의 epiphany를 경험하나 "The Dead"에서처럼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갈등과 대립을 자기 승화의 바탕으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지는 못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The Dead"를 제외한 14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모든 갈등과 대립 양상은 "The Dead"에서의 정신적 부활을 위한 암시적 번민이요 방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Joyce 역시, 그런 창작 의도를 저변에 깔고서 전체 단편들을 창작하고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의 높은 문학 정신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작가 정신을 읽어 낼 수 있다.

Joyce는 "The Dead"의 주인공 Gabriel이 인간의 자만심, 탐욕, 그리고 욕정의 갈등 상태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과 승화(sublimation)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서정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산문시로 상징화 시키고 있다.<sup>15)</sup>

...snow was general all over Ireland. It was falling on every part of the dark central plain, on the treeless hills, falling softly upon the Bog of Allen and, farther westward, softly falling into the dark mutinous Shannon waves. It was falling, too, upon ever part of the lonely churchyard on the hill where Michael Furey lay buried. It lay thickly drifted on the crooked crosses and headstones, on the spears of the little gate, on the barren

15) 上掲書, p.507.

---

thorns. His soul swooned slowly as he heard the snow falling faintly through the universe and faintly falling, like the descent of their last end, up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 (pp.223~224)

정신적 洗禮를 위한 Shannon 강물과 그 위에 떨어지는 눈, '비뚤어진 십자가'와 '메마른가시'와 '뽀족한 쇠창살끝'에 소리없이 수북하게 쌓이는 눈의 영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거대하면서도 보편적 섭리의 존재에 대한 상징이며 인간이 왜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갈등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작가가 대부분 그러한 분석을 전제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Joyce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갈등 유형도 이점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 갈등의 유형이 같다고 해서 그 동기나 해결 과정이 동일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갈등이 양자간의 대립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한 네가지의 갈등 유형 역시 *Dubliners*에 나타난 모든 갈등 유형을 총망라해서 정확하게 분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류는 사실상 갈등의 개념이나 그 유형의 갯수를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Joyce의 *Dubliners*에 나타난 가장 주된 갈등의 유형을 포착하려 했으며 그 결과 크게 네가지의 양상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주인공들이 유년기에 있는 “The sisters”, “An Encounter”, 그리고 “Araby” 등의 작품에서는 自我의 문제, 현실의 무기력 상태에 대한 반발, 저항 심리상태가 두드러지며 아직 Dublin의 마비 상태에 감염되지 않는 깨어있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갈등과 번민, 분노등이 작가의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적 시각과 문체로 묘사된다. 그러나 모든 自我對 他我的 갈등양상은 후자의 승리로 끝남으로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自我는 더 극심한 가치 혼란, 정신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어린 소년들의 꿈에 대한 좌절과 이상적 삶의 실패는 어른 세계와 추악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물학적 본능이나 성욕, 자유에의 본능과 의지 또한 기존 사회의 도덕률이나 가치 체계와 대립하며 심각한 갈등 상태로 옮겨간다. “The Boarding House”의 Doran 과 Polly Mooney 부인의 갈등 양상이나 “Counterparts”에서의 Farrington의 모습, 또 “A Painful Case”에서의 Duffy의 이중적 성격 등이 다 그러한 갈등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년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정신적으로 순수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本能과 道德律과의 대립 상태에 있는 이들은 이미 Dublin의 도덕적 마비 상태에 감염되어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미숙한 이들은 자율에의 욕구(need for autonomy)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본능에의 욕구(need for instincts)를 버리지 못한다. 결국 기존의 가치 체계나 도덕률, 고정 관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生中死(death in life)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요인, 그리고 유럽 대륙보다 낙후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金錢'의 위력에 쪼든 Dublin 사람들의 가치 부재 및 도덕 의지의 마비현상 또한 두드러지는데 "A Mother"에서의 Kearney 부인과 Eire 독립협회의 음악회 주최자들과의 대립 상태는 그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유럽의 富를 은근히 동경하면서, 그곳 출신들의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는 "After the Race"에서의 Doyle의 모습이라든지, "Two Gallants"에서 Lenehan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과 그의 친구 Corley를 부러워하는 심리 상태 역시 物質과 精神의 대립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거대한 精神病棟처럼 여겨지는 Dublin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탈출에의 의지와 그 좌절 상태 속에서의 갈등 양상 역시 여러 작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Eveline"에서의 여주인공 Eveline의 모습이라든지, "A Little Cloud"에서의 꼬마 Chandler의 좌절 상태를 그 예로 들만하다. 무료하고 단조로운 학교 생활의 굴레를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찾아나서는 "An Encounter"에서의 '나'의 모험적 행위와 그것이 수반하고 있는 불안 상태, 그리고 탈출한 후 모험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기성 세대에 대한 환멸감 역시 감금 대 탈출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Dubliners*의 문학적 탁월성이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적 시각에서 포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정확하고 적절한 진술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Joyce은 Dublin이라는 마비된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단순히 일렬로 나열하고 Omnibus 식으로 짜 놓아 구성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비된 자들, 죽은 자들이 깨어나 부활해 가는 과정을

Joyce 만의 독특한 시각에서 치밀하게 순서를 매기고 효과의 통일성, 시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단편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단편들은 상호간에 많은 관련성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 주도면밀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이야기들이 유년기 시절에서 청년기, 장년기 시절로 옮겨가는 양상이라든지 사적 생활에서 공적인 대중 생활로 전개되가는 것도 모두 Joyce의 특유의 치밀한 구성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모든 이야기들의 종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The Dead”에서는 *Dubliners*에 나오는 다양한 갈등들을 상징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것들의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Joyce는, 그러한 과정의 분위기나 setting 을 설정하기 위해서 음악적 인유(引喩)나 시적 산문의 미학을 총동원,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 기법은 물질 문명에 찌들어 가는 인간의 마비된 의식에 메스를 대고 해부, 해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수술해서 치유해 내려는 긍정적인 작가 정신, 문학 정신에 접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Dubliners*가 “The Dead”가 없는 14개의 단편들만으로 구성된다면 임상 병리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채 너저분하게 흩어 벌리어진 수술대 위의 형상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韓國文獻

#### 〈單行本〉

- 루이스 A. 코저(1956),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譯, 한길사.  
이정균(1990), 「개정판 정신의학」, 一潮閣.  
이정식외 2인(1986), 「프루스트·토마스만·조이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제임스 조이스(1907), 「더블린 사람들, 亡命者들」, 김종건 編譯(1989), 汎友社.  
조남현(1988), 「한국 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池田文雄(1979), 「北아일랜드 그 원한의 역사」, 이길진 編譯(1981), 青年社.  
한용우 編(1988), 「그리이스 로마신화」, 홍신문화사.

#### 〈기타 文獻〉

- 도서출판 이삭, 임석진 編(1983), 「哲學事典」, 중앙도서관  
종로서적, 종로서적 編(1989), 「哲學小事典」, UNIVERSITY LIBRARY

### 2. 西洋文獻

- Attridge, Derek & Ferrer, Danniell (1988), *Post-Structuralist Joyce*, Combridge  
Attridge, Derek, ed(1980),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Cambridge.  
Berlitz(1991), *Ireland*, A Macmillan Company.  
Beja, Morris(1973), ed.,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Macmillan.  
Campell, Joseph & Robinson, J. M.(1986).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Pen-  
guin Books.

- Coser, Lewis (1969) ,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A Free Press.
- Hanke, S. A. (1990) ,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Loutledge.
- Joyce, James (1907) , *Dubliners : Text, Criticism and Notes*, R. Scholes and A. Walton Litz ed, Penguin Books.
- Joyce, James (1973) , *Exiles*, Penguin Books.
- Joyce, James (1977)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hester G. Anderson ed., Penguin Books.
- Joyce, James (1984) , *Ulysses*, Penguin Books.
- Kenner, Hugh (1978) , *Joyces Vo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poport, Anatol (1974) ,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 Penguin Books.
- Scott, Bonnie Kimme (1987) , *James Joyce*,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 Sillis, David, ed (1968)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Abstract>

## The Types of Conflicts and their Solution in *Dubliners*

Ryoo, Chang-Seo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novel is a process of conflict relation and the result of it. This implies that the proper establishment of conflict relation is very important in organizing a novel. James Joyce's *Dubliners* is very illustrative and suggestive in terms of the conflict relation.

In *Dubliners*, which is Joyce's firs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written between 1904 and 1907, Joyce shows various conflicts of people living in Dublin where he was born and brought up.

Though it consists of events limited to a particular place and a particular time, *Dubliners* represents such universally appealed problems and social phenomena as spiritual paralysis, value confusion, moral frigidity, and widespread mammonism.

Considering the fact that a literary work is essentially a product of it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contemporary reality, it is meaningful to research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analyzing a literary work. Accordingly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deals with the rough history and culture of Dublin in the late 1900's and the early 2000's

*Dubliners* is composed of 15 short stories and Joyce classified them into four aspects in terms of characters : childhood, adolescence, maturity, and public life. However, this thesis divides the 15 stories into four groups in another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Joyce's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grouping, theoretical backgrounds of conflicts are researched and mutual relation between them and *Dubliners* is presented. And in the chapter three, various types of conflicts in *Dubliners* are classified into four aspects and explained.

The first aspect is the conflict between 'self' and 'other self'. For example, 'I' in "Araby" is confronted with his uncle because he broke his promise with 'me', feeling the bitterness of disillusionment about adults' indifference. And in "An Encounter", the hero 'I' attempts an adventure to escape from daily lives' weariness, but after all he realizes disappointing realities by an old man.

The second type is the conflict between instincts and ethics. Biological, freedom-oriented, and sexual instincts are conflicting with social morals and value systems. For instance, the conflict between Doran and Mrs. Mooney in "The Boarding House" belongs to this type of conflict. In "Counterparts" Farrington's psychological state, and Duffy's duplicate characteristics in "A Painful Case" imply these aspects of conflicts

The third type is connected with the conflict between material and spirit. Becaus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Dubliners* show extreme philistinism and mammonism. For example, the serious conflict between Mrs. Kearney and the Eire Abu Society is related with decadence of art by money.

Finally, the fourth aspect is the conflict between confinement and escape.

---

In *Dubliners*, Joyce regards Dublin as a big psychiatric ward, and shows its patients' desire for escape, and state of its frustration. For instance, Eveline in "Eveline" and Chandler in "A Little Cloud" long for escape from their daily confinement and try escape, but they all come to fail in the adventure.

In the chapter four, Joyce's extinguished organization of *Dubliners* is researched. In "The Dead", the climax part in *Dubliners*, he tries to bring all the conflicts to a settlement, and the story shows us the mentality and direction in Joyce's literature. By means of many literary techniques the situation of spiritual communion between living Gabriel and dead Michael Furey is described. In the end, we come to recognize the affirmative mentality through the various conflicts in Joyce's *Dubliners*.

